SOCIETY

‘과학기술특성화대학’ GIST, 인문학도 품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광주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24일 교육연수원…중3 대상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고교학점제 도입, 2028 대입개편안 시행 등 변화하는 고교 교육 환경 속에서 자녀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 방안 △2026 전기 직업계고(특성화고) 입학전형 △2026 후기 평준화 일반고 입학전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는 중3 학부모 등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2026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 참여 신청 폼’(https://naver.me/5PVNXDnX)을 통해 하면 된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등은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wangjuedu)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인문사회과학부 신설…출범식·심포지엄 개최

임기철 총장 “창의·혁신 ‘융합인재’ 양성할 것”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융합 교육의 기반이 될 인문사회과학부가 신설됐다.

GIST는 15일 대학 A동에서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GIST는 지난 2월1일 학사조직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과학부를 신설하며, 융합교육 체계의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대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 A동 정문에서 현판식,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인문사회과학부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임기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출범한 인문사회과학부는 GIST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춘 인재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통합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의 인문사회과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김건우 인문사회과학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인문사회 교육 사례가 소개됐다.

김건우 학부장은 “GIST 인문사회과학부는 학생들이 과학기술을 넘어 인문사회적 사유와 실천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학부의 비전을 소개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교육을 확장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서고자 하는 GIST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발표 세션에서는 △전봉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장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의 현황과 비전’ △배하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교수의 ‘온라인 오픈 코스웨어를 활용한 DGIST 인문사회 교육 최적화 모델’ △김효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문학부 교수의 ‘융합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가: 현장의 고민과 가능성들’ △우정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문사회학부장의 ‘POSTECH 융합형 교육 사례’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사례 발표를 통해 융합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향후 협력과 혁신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발표자들과 GIST 교수진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간 융합 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우 GIST 총학생회장은 “이번 인문사회과학부의 출범은 GIST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고,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국제직업고 → 전남미래국제고 교명 확정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 3월1일 개교 예정인 (가칭)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명 선정은 지난 3월 11~24일 도민 공모로 시작됐다. 이후 1차 심사를 거쳐 5개를 추린 뒤 4월 1~4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어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전남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 양성의 중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의 비전을 잘 표현한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만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학교 설립 취지와 교육 방향을 잘 담아낸 이름”이라며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다문화와 직업교육이 융합된 선도적 모델이자,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내란 잔당 즉각 탄핵하라” 1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 잔당 즉각 탄핵과 내란특검법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남구 청년 따순 주먹밥 1호점 개소

“80년 5월 주먹밥, 45년 만에 청년들 곁으로”

백운광장 인근 ‘청년와락’…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이용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 2호점 계획…복지서비스 연계도

“오월 정신에 대해 잘 몰랐던 청년들이 ‘주먹밥’의 의미를 되새기고, 배고픈 청년들이 끼니를 해결하길 기원합니다.”

고립과 은둔의 삶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남구 따순 주먹밥 쉼터 1호점’이 16일 개소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내 남구청장, 이용성 양지종합사회복지관장, 이숙자 동신대종합사회복지관장, 이선미 인애종합사회복지관장 등 내외빈과 청년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남구 따순 주먹밥 쉼터는 보건복지부 올해 신규사업이다.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광주 남구가 선정됐다.

남구가 따순 주먹밥 운영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남구 전체 9만5005세대 중 1인 가구는 3만7471세대(39%)에 달한다. 이중 청년 1인 가구는 1만121세대(27%)다. 지난해 남구에서만 21명이 고독사했다.

이에 남구가 운영하는 따순 주먹밥 쉼터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와 대동 세상을 열고자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나눠 먹었던 주먹밥에서 태동했다.

해당 시설에 방문하는 청년 1인가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셀프 주먹밥과 컵라면 등 소소한 한끼 정도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다.

또 누구나 쉬어 가고, 누구나 먹고 가는 휴게공간 제공으로 고립위기 청년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에 청년와락에는 청년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공유서가, 커뮤니티룸, 디지털학습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광주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과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꿈 잡아드림(Job아Dream), 청년활동 포인트제 등을 포함해 주거·금융 분야, 생활·복지·교육 정보를 전달한다.

신규나 도시재생분과장(34·여)은 “이런 시설과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외된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광장 인근 청년와락(1호점)과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2호점), 봉선동 인애복지관 별관(3호점)에 마련되는 따순 주먹밥 쉼터는 정부 지원금과 지방비로 운영된다. 운영 전반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맡는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 따순 주먹밥 쉼터가 향후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동료 직원 사망에 북구 공직사회 ‘뒤숭숭’

부서장·구의원 뒷말 무성…“사실관계 조사 착수”

〈속보〉‘광주 북구 공영주차장서 공무원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광주 북구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유서에 담긴 ‘부서장, 구의원, 민원인 등으로 힘들다’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본보 4월14일 5면〉

16일 북구 등에 따르면 30대 공직자 A씨가 지난 14일 북구청사 맞은편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며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부서장과 구의원, 민원인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 북구청 내부에서는 부서장과 구의원의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했는 지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서장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란 말부터 민원 업무에 따른 고충이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다.

또 지역구 의원과의 마찰이 평소 잦고 있던 우울증과 맞물리면서 스트레스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북구 측은 이러한 추측들이 난무함에 따라 경찰 수사와 관계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전날 조문을 간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북구청 한 간부공무원은 “장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 조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간 소통을 비롯해 심리상담치료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